



국민의 보다 큰 신뢰받는 협회가 되도록 하자

崔振學 회장, 사무국장회의서 지시



▲ 9월 26일에 있었던 사무국장회의

회의 첫날 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더욱 열성껏 일해 국민들의 보다 큰 신뢰를 받는 협회가 되도록 국장님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보다 다양한 검사종목 확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무국장 회의기간 중에는 경남지부의 신축 청사 완공식도 함께 있었는데, 崔振學 회장, 김종호 마산시 부시장, 박종택 경남 지부장을 비롯한 건협시·도지부 사무국장이 모두 참석해 경남지부의 보다 큰 발전을 기원하며 새롭게 단장한 청사 내부를 돌아보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1991년도 제2차 사무국장회의가 지난 9월 26일부터 3일간 경남지부에서 개최되었다.

崔振學 회장의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지부 청사 신증축 계획, '92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 기본 방향, '92년도 사업계획 편성지침(안), 제5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을 실태조사, 특별회원 관리사업 등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건강소식 발행인,
崔振學 회장으로 변경

이번호부터 건강소식의 발행인이
崔振學 회장으로 변경·발행된다.

건협 대구지부, 새 청사서 검사시작

지난 9월 16일 부터



▲ 대구지부 신축청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가 지난 9월16일부터 신축청사로 이전했다.

지난해 12월, 청사 신축공사를 시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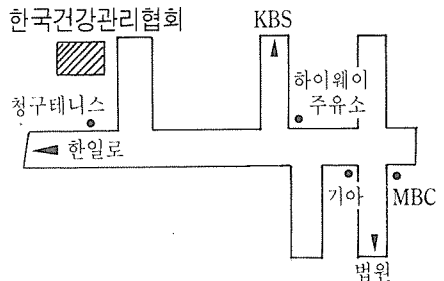
이번에 완공을 보게 된 대구지부는, 이제 보다 넓은 공간과 보다 체계적인 최신 장비를 갖추고, 보다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내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변경된 주소와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주소 : 대구직할시 동구 신천동 산213-2

◦ 전화번호 : 755-5385,
754-3385, 0203

◦ 위치



전화번호 변경 안내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및 경남지부의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지부명	변경 전	변경 후
광주·전남지부	(362)4086, (33)0065	(366)0065, (363)0447
경남지부	(46)1606	(99)2245~7